

### 세계종교지도자 포럼 발표 내용

# “모든 중생 한몸이므로 공심·공체다”

〈共心·共體〉

#### 한 사람의 실천이 세상 바꾼다

현각 스님(미국/독일 화계사)  
 캐서린 헵번(1907~2003)이라는 영화배우가 있었다. 캐서린 헵번은 인터뷰도 절대 안하고 파티도 안 나갔다. 싸인회도 안했고 대중들과 만나지도 않았다. 언젠가 웬일인지 인터뷰 요청을 수락한 적이 있었다. 새벽 5시였다.  
 한 여기자가 캐서린 헵번을 인터뷰하기 위해 따라가 질문을 던졌을 때, 파도가 몰아치며 모래 속에 묻혔던 조개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캐서린은 말없이 조개를 집어서 바다로 던질 뿐이었다.  
 화가 난 여기자가 따져 물었다. 그러자 캐서린은 “나는 이 조개를 들고 있어요.”  
 “백사장의 맑은 조개를 가운데 몇 개를 주워 던진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느냐?”고 여기자가 반문했다.  
 캐서린은 “그래도 내가 집은 이 하나의 조개에 생명이 달렸다”고 답했다.  
 그렇다. 한 사람이 지혜롭고 자비로운 행동을 하는가 아닌가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 탐진치 극복이 자아를 깨닫는 길

청고 스님(한국 한마음선원 국제문화원)  
 대행 스님의 〈뜻으로 풀 반야심경〉 가운데 멋진 구절이 있다. 모든 중생이 한 마음 한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 때문에 인간은 고통스럽다.(모든 중생들은 본래부터 공생(共生), 공심(共心), 공용(共用), 공체(共體), 공식(共食)하며 고정됨이 없이, 나누고 화하여 돌아가건만 그것을 몰라서, 일체 고(苦)의 길을 걷나)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재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탐·진·치 때문에 우리의 참 자아를 깨닫게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신(神)의 이름은 몇 개가 될까? 하나뿐이다.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변한다는 건 어렵다. 그러나 ‘나’라는 것을 내려놓게 되면 모든 것은 변하게 된다.  
 불교에서는 불성을 말한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성·신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주전체, 모든 생명체 어떠한 것 모두 불성으로 연결됐다는 점이다. 나를 버리고 그 진리에 연결됨이 중요하다. 이것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욕망이다.

#### 영적 빈곤 선결이 물질적 빈곤 해법

사무엘 리 교수(한국 유네스코 前 대표)  
 한국을 예로 들면, 한국은 수십 년 동안 눈부신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뤘다. G20이 열리는 동안 언론매체에서는 한국이 짧은 기간 내에 최빈국에서 원조국으로 성장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 불균형도 같이 초래했다. 현재 한국은 경제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도시 70%를 전체 인구의 30%만이 소유하고 있다. 10대 재벌기업이 전체 GNP의 71%를 생산한다. 3급 고위공무원의 40%가 소위 스카이라 불리는 명문대 출신인 것이 그 예다.  
 한국의 극심한 경쟁사회는 심리적인 압박과 비인간화, 인간성의 왜곡을 야기했다. 늘어나는 자살률과 줄고 있는 출생률만 봐도 알 수 있다. 한국은 이제 최고의 자살률을 자랑한다. 이러한 문제는 국내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전세계적인 물질적 빈곤을 넘어선다면 영적 빈곤을 해결해야 한다. 물질적 풍요가 아닌 영적 빈곤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현각 스님



청고 스님



사무엘 리 교수



웨렌 스톤 람비



정관 스님



정현경 교수

#### 소비·생산 그치고 영적인 것에 주목해야

웨렌 스톤 람비(미국 엠마누엘 템플)  
 미국의 차 가운데 ‘허머’(hummer)는 많은 연료를 소비한다. 반면에 하이브리드카의 대명사인 도요타 프리우스는 적은 연료를 소비한다. 국제적으로 소비 지향적인 사회에 저항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면서 우리의 소비성향이 파멸을 불러오고 있음이 곳곳에서 경고되고 있다.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들은 파멸을 막기 위한 대안의 하나이다.  
 경제학자 폴킴킨스는 “우리는 미래의 것을 훔쳐서 팔고 있다. 그것을 GNP라 부른다. 우리는 미래를 치유해야지 훔치는 일을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나는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유대교에서는 6일은 물질세계에 살면서 소비·생산하고 마지막 7일에는 ‘모든 사람의 평화’라는 노래를 하며 지낸다. 소비하지 않는 시간(안식일, 기독교에서는 일요일)을 통해 영적인 부분과 닿으려는 시도는 오늘날에도 필요하다.

#### 진정한 부는 열린 마음에 있어

정관 스님(대만 불교산 상가교육처 감독)  
 성업 선사는 “주머니에 돈이 있는 것이 낫다. 하지만 마음·머리 속에는 돈을 두지 말라”고 말했다. 세상은 원래 단순한데 지금은 너무 복잡하다. 우리에게 단순하고 소박한 삶이 필요하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해져도 우리의 욕구는 결코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물질적 부는 편안함과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고난과 짐착도 함께 가져온다.  
 중국속담에 “베고프고 추우면 사람들이 도둑이 될 수 있다”는 말이 그 예다.  
 부의 안락은 욕망을 부추긴다. 물질적 부의 성장은 사람들의 지성과 책임감을 증진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의 오염을 증가시킨다. 사치스러운 삶의 스타일과 사회적 불안정을 가져온다. 인간의 삶의 행복과 건강은 반드시 물질적 부와 동일하지 않다.  
 진정한 부는 열린 마음의 자세에 있다. 모든 중생을 우리가 자비로 대할 때 모든 중생의 부가 우리의 부가 된다. 우주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된다.

#### 종교지도자 역할은 다리 놓는 일

정현경 교수(미국 유니온 신학대학 교수)  
 “이 세상에 정의가 없다면 누구도 평화로울 수 없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숭산 스님이 가르쳐준 것은 “내가 먼저 평화로워 진다면 그 때 평화로워질 것이다”였다.  
 불교와 개신교 동·서와 남·북 그 서로 다름에 다리를 놓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이것이 대행 스님이 가르침이기도 하다. 불교학자들은 현재 문제가 탐·진·치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오늘날 인간의 욕심은 신자유주의·세계화로 나타나고 있다. 많은 무지가 군대와 폭력 때문에 생겨나고 있다. 군수산업처럼 무지와 분노와 욕심을 부추기는 산업은 없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운동을 해야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 진행 중인 생명평화의 길 운동은 고무적이다. 나눔 존중 상생 공존을 추구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평화의 토대가 된다. 명심하라.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를 기다려서는 안된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다.  
 정리-이냐는 기자



#### 조기룡의 사찰경영학 ⑥

## 목표는 수치로 구체화해야

‘전법도생(傳法度生)의 원리’란 전법(傳法)을 통하여 양적으로 성장하고, 도생(度生)을 통하여 질적으로 성장하는 사찰이 성장한다는 원리이다. 양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린 법회를 봉행해야 한다. 사찰 안의 사람들 위주에서 사찰 밖의 사람들 위주로 법회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질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수행과 기도하는 사찰을 만들어야 한다. 사찰성장은 종교적 성숙의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종교적 성숙은 수행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사찰경영의 원리’란 사찰을 조직체로 이해하고 사찰을 발전시키도록 경영을 할 때 사찰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찰의 경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사찰을 운영해야 한다. 조직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기획과 목표설정이다. 기획하는 사찰은 기획하지 않는 사찰보다 더 성장할 수 있다. 현대조직에 있어서 기획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기획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기획은 비전을 낳고 비전은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목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요구한다. 목표설정과 사찰성장은 매우 밀접한 상관

관계(relationship)와 사명(mission)과 비전(vision)과 전략(strategy)이라는 사찰경영의 근본 개념이 떠오를 수 있다.

가치란 행동을 결정하는 핵심적 신념이다. 내가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 행동이 가치 있기 때문이다. 가치가 없다면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가치 있다고 믿으면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든 나는 행동하게 된다. 사찰성장에 가치를 두는 주지는 사찰성장을 소원하고 행동하고 자신을 희생할 것이다. 가치는 모든 결정과 선택을 주관하는 원동력이다.

사명이란 가치를 느껴 행동하는 내용 그 자체이다. 부처님의 전도부축이라는 가치 때문에 사찰을 창건한다면, 그 사찰이 할 일, 예를 들어 전법과 포교가 바로 그 사찰의 사명이다. 사명은 모든 목표와 행동을 포함하기 때문에 전반적이며, 한두 마디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간결한 것이 특징이다. 가치가 왜 하느냐에 대해 대답해준다면, 사명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 답해 준다.

비전이란 사명이 이루어진 모습이다. 비전이란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사명의 미래 모습으로서 명확하고 도전적인 청사진이다. 명확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도전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하고, 청사진이기 때문에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사명이 일반적이라면, 비전은 구체적이다. 사명이 행하는 것이라면 비전은 보는 것이다.

전략이란 가치에 의해 주어진 사명과 사명에 의해 그려진 비전을 이루는 방법이고 과정이다. 사명과 비전이 없이도 전략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말이 없는 마차에 불과하다. 전략이란 도구요 수단이기 때문이다. 가치가 왜(why)에, 사명이 무엇(what)에, 비전이 어디에(where)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면 전략은 어떻게(how)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된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사찰 성장 위해서는 신도 수행 필요  
 기획·목표 세우고 인력 관리 잘해야  
 비전은 ‘왜?’ 사명은 ‘무엇?’ 에 해당

### 스님이 만든 생식

곡류 50%를 받아시킨  
**효소 발아생식**

- 1 타 생식에 비해 채소류, 해조류가 2배 이상 첨가되었습니다.
- 2 유기농으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 3 99% 국내산 제품입니다.
- 4 돈을 벌기 위한 제품이 아닌 중생들의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불심 깊은 불자님 지역총판 모집합니다. 070-7629-5920**

\*1일 1기 1포(40g) X 60포 (2개월분) **100,000원**